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창조교회

2016년 9월 4일 오후 2시, 분당 창조교회에서 미얀마 조친어 구약성서 번역 프로젝트 후원을 감사하는 선교예배를 드렸다.



창조교회 성도들과 조친 부족 사람들이 함께 조친 성경 번역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다.

♪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향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

지난 9월 4일 오후, 창조교회(예장(통합), 담임 홍기영 목사)에서 미얀마 소수 부족인 조친 부족의 언어로 찬송이 울려 퍼졌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창조교회 성도들은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기를 시작하였다. 선교예배에 참석한 조친 부족 사람들은 구

약성서 번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뻐하며 찬양으로 창조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창조교회는 지난해, 쿠바에 스페인어 성경을 전달한 데 이어 올해에는 미얀마 조친 부족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조친어 구약성서 번역 프로젝트를 후원하기로 본 공회와 약정하였다. 신약성서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조친 부족 사람들은 2007년 신약성서를 봉헌한 후 오랫동안 구약성서를 기다리고 있다.



창조교회 선교위원회와 조친 부족 사람들

선교예배를 드리기 전, 직접 전통의상을 입은 조친 부족 사람들은 본 공회가 지금까지 제작 기증한 첫 번역 성경이 전시된 부스에서 창조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조교회 성도들은 130여 년 전 해외성서공회와 해외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한글 성경을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미얀마 조친 부족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마음과 기도로 전달할 수 있음에 감사하였다.

찬양이 끝난 후, 홍 목사는 “미얀마의 조친어 구약성서 번역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성서공회를 통하여 각 나라 각 족속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는 이 일에 우리 민족이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기도를 드렸다.

본 공회 권의현 사장은 “전 세계 약 7,000여 개의 언어 중 성경전서가 번역된 언어는 6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2030년 중반까지 남은 6,000여 개의 언어들이 단편성서라도 번역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인사말을 전하였다.

2009년 1월에 시작된 조친어 구약성서 번역은 2018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2019년 초에 조친 부족 거주지인 계례묘에서 봉헌식을 갖게 될 것이다. 모국어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친 부족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한다. 🌐



조친어 구약성서 번역 프로젝트 후원 협약식 - 홍기영 목사(좌)와 권의현 사장(우)

가장 아름다운 성탄 선물, 우간다에 첫 번역 루마사바어 성경을 보냅니다.

- 대한성서공회 후원회원, 이재성 장로, 남양주총신교회

지난 10월 25일, 본 공회 반포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대한성서공회 후원회원과 이재성 장로(진주동부교회) 그리고 남양주총신교회(안성덕 목사)의 후원으로 우간다를 위한 루마사바어 첫 번역 성경 5,100부를 기증하는 예식을 가졌다.

2010년부터 해외 성서사업을 후원해 온 이재성 장로는 자신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본 공회에 헌금을 보내왔다. 남양주총신교회는 설립 6주년을 맞이하여 9월 한 달 동안 전 교인이 귀한 헌금을 모아 첫 번역 프로젝트 사역에 동참하였다. 아울러 본 공회의 후원회원(3만여 명)들의 정성이 더해져서, 성경 기증이 이루어졌다.

남양주총신교회 안성덕牧사는 “한국교회가 성장하였을 때는 복음을 붙잡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였을 때였습니다.”라며 말씀



첫 번역 루마사바어 성경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우리 교회가 창립 6주년 기념으로 바마사바 부족의 첫 번역 성경을 보내는 일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첫 번역이 끝나고 본 공회가 무상으로 조판하여 제작된 루마사바어 첫 번역 성경 5,100부는 11월 말 우간다에 도착하여, 12월 중에 바마사바 부족 교회에서 봉헌식을 갖고 부족 사람들에게 성탄선물로 보급될 예정이다.🌐



성경을 컨테이너에 실어 보내기 전, 바마사바 부족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총신교회 성도들



이번에 기증 받는 우간다는..

루마사바어는 우간다 동쪽 지역에 거주하는 바마사바(바기수)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바마사바 부족 인구 중 80%의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가 어렵다. 그 원인으로 가장 주요하게 꼽히는 것이 바로 이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경이 공식 언어인 루간다어와 영어로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바마사바 부족을 위해 우간다성서공회는 그동안 루마사바어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경을 조판하고 출판할 수가 없었는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성경이 제작되어 올 성탄절에 바마사바 부족에게 생애 첫 번역 성경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다.

바마사바 부족 출신인 우간다성서공회 총무는 “바마사바 부족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성탄절에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방과 후 학교에서 성경공부를 하는 우간다 학생들